

조선시대 철릭의 바느질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소장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김 종 숙* · 고 부 자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본 연구는 高麗中期이후부터 朝鮮時代に 王이하 庶人에 이르기까지 착용하였던 철릭에 대한 것이다. 철릭의 형태는 上下가 연결되고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으며, 소매는 단추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구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착장자의 신분과 용도를 살펴보고,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에 소장된 출토유물 중 측정이 가능한 68점을 실측하여 바느질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홀과 겹옷의 유물을 1점씩 선정하여 복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에서 철릭의 語源은 몽골어 "Telig" 또는 "'Terlig"의 음을 차용한 漢字式 표기법이며, 형태는 Telig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음은 "털릭"이라고 하고, 표기는 "帖裏"라고 하였다. 실물로는 元代 예송계의 墓에서 나온 텔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철릭과 비슷하다.

철릭의 명칭은 문헌에서 帖裡, 帖裏, 貼裡, 天益, 天翼으로 다양하며, 한글로는 철릭, 털릭, 첩니, 천닉 등이 있다. 이중에서 "帖裏"는 朝鮮末期까지 표기되어 있으며, "天益"은 宣祖 9年(1576)에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철릭에서 腰線帖裏라는 것이 있는데 홀과 겹 두 가지이며 대부분 하사품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하사품 중에 成宗 11年 "大紅紉藍腰線帖裏"이 있다. 이는 요선의 색이 옷의 색과는 다른 織物이나 장식선을 사용하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昭顯世子(1627) 『嘉禮都監儀軌』에는 "腰線則色眞絲一兩五錢二分", 肅宗仁顯后(1681)와 肅宗仁元后(1702)에 妃父의 철릭에 "腰線色絲一兩五錢五分"이라 하여 이 시기까지도 착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문헌에 나타난 철릭을 『朝鮮王朝實錄』, 『嘉禮都監儀軌』, 『尙方定例』, 『國婚定例』, 『宮中件記』 통해 신분은 王, 王世子·王世孫, 妃父, 文武百官, 通信使, 樂工으로 나누었다. 용도는 常服의 裏衣, 殮襲, 梓宮, 小殮衣, 교외 動駕, 陵에 行幸할 때, 嘉禮時 衣擲用, 冊禮時, 冠服代用, 擊毬할 때, 朝鮮通信使 행렬시 착용하고 進上 및 進獻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출토철릭 68점을 홀은 18점, 겹은 22점, 숨은 21점, 누비는 7점으로 분류하여 바느질법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홀옷의 바느질법은 온박음, 반박음, 감침질, 옛삼술로 정교하였다. 어깨바대는 어깨선과의 고정에서 먼저 걸쳐 있는 실 밑으로 나오는 실이 한번 걸게 만들어 보통 감침질보다 고정이

잘 되도록 하였다. 어깨바대와 허리바대가 있으며褶이 없다. 織物은 蓮花紋紗, 白苧, 雲寶紋緞, 花鳥紋緞, 三足尙羅, 雲紋紗, 순인 등이 사용되었다.

겹옷의 전체적인 바느질법은 흠질이며 겹보다 안의 흠질이 성글게 되어 있다. 안감의 초와 裳의 연결부위에는 衣를 내려서 감침질로 裳과 연결하며 흠질로 주름과 고정시켰다. 깃의 이 중선, 여밈과 밑도련, 수구의 가장자리[邊]에 상침하였다. 襟과 入雀이 있고, 어깨바대 및 허리 바대·단추바대·옆바대 등이 없다. 織物은 겹이 雲寶紋緞과 명주, 안은 명주로 하였다.

솜옷은 겹→한지→솜→안감 순으로 하였는데 겹은 따로 바느질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였다. 깃과 여밈·밑도련·수구의 가장자리(邊)에 0.5cm 너비로 솜을 말아 넣어 그 밑을 고운 흠질로 하였고 상침하였다. 褶이 있고, 겹과 같이 바대종류는 없다. 겹·안 모두 명주이다.

누비옷으로 솜을 넣은 것은 衣·裳 연결부위에 바느질 할 부분을 남기고 누벼서 겹 바느질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솜을 넣지 않은 것은 전체를 두 겹의 織物로만 누벼서 한 장의 훌처럼 바느질되어 있었다. 裳의 도련과 수구 등에 눈썹단으로 마무리하였다.

셋째 유물을 그대로 만든다는 의미로써 현재 사용중인 "復原·複製·再現"을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아 "複製"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훌옷과 겹옷 1점씩을 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토철릭의 바느질법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유물 複製를 통해 구성과 바느질을 이해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유물 複製나 고증자료로 활용되어 많은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